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옛 시에 취하다

이 책은 옛 시를 통해 현대인의 사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고전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이와 깨달음이 일상의 자잘한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묻혀 있다.

“개미집도 돌려 가라. 산 풀도 밟지 말라. 막 자라는 것을 꺾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일 년 사계절의 기후변화가 곧 자연법칙인데, 자연을 거스르는 것으로 변해버린 생태를 염려하는 글로 풀어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봄꽃이 만개해야 할 4월인데 날도 너무 춥고 봄비도 너무 잦다. 4월 강수량이 너무 많아 농작물 피해도 있다하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정말 실감나는 요즘이다.

“부드러움이 쌓여 굳세지고 약함



연륜에서 묻어나는 너그럽고 따뜻한 힘이 글의 행간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고전들을 일상 속에서 만나는 느낌은 참 새로우면서도 편안하다. 하루하루 쫓기듯 살아가는 내 모습을 한번쯤 되돌아보게 만든다. 거창한 삶의 의미에서부터 소소한 일상까지 나와 내 가족들, 친구들까지 돌아보게 한

한발 물러서기 천천히 나아가기

이 쌓여 강해진다. 그 쌓이는 것을 관찰하면 화와 복의 분향을 한다. 물에는 근육이나 뼈가 없지만 일만 톤의 배를 감내한다.”

진각국사의 설법이다. 세상을 향한 원대한 포부를 가졌더라도, 나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알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려는 지혜로운 교훈임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굳세어지려면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수양부터 쌓으라는 것이다.

고전의 지루함이나 딱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도 필자의

다. 한마디로 바쁜 일상에 ‘사색’이라는 선물을 받은 느낌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늘 한발 물러서서 세상을 보라고, 조금 더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결국엔 앞서는 거라고 필자는 말한다. 책을 덮을 때쯤이면 어느덧 맑게 정화되어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된다.

옛 시에 취하다 | 이종찬 지음 | 한결출판 · 더 퍼냄 | 1만2000원

강지숙

자연은 조화로운 화엄법계

관측천문학 대가 이시우 박사 ‘붓다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하나님을 초월하고, 교리나 신학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연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과 정신 모두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감각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 불교가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는 대안이다. 만일 현대 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곧 불교가 될 것이다.”

20세기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불교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과학적 탐구의 동기가 되는 우주관이 종교에 들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관측천문학의 대가 이시우 박사(74·前 서울대 천문학과 명예교수)도 최근 펴낸 <붓다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에서 “불교는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에 대한 진리를 꿰 보려는 현대의 첨단우주과학사이에 가장 알맞은 종교”라고 말한다.

책에서 이시우 박사는 초기경전에 있는 부처님의 진실한 말을 통해 인간 붓다의 위대한 인생관과 과학적 동기를 부여하는 그의 우주관을 설명했다.

부처님은 “슬픔을 거두고 잘 들어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인연 따라 생긴 것은 변하고 바뀌지 않은 것이 없다. 죽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했다. 이시우 박사는 이를 생주이멸(生住異滅)과 생명평등사상을 해석한다. 인간들처럼 하늘의 별들도 태어나 지나가다 죽어 없어지는 우주만물의 원리를 따른다.

이 박사는 또 우주물 육상원용(六相圓融)의 교리로 해석한다. 자연에 있는 구



성원들 사이의 역동적인 연기관계에서 각 구성원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하면서 자신의 특성에 가장 알맞은 임무를 무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해가고 있다는 것.

이시우 박사는 “이처럼 자연의 사물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안정된 조화로운 상태에서 진화하면서 모두가 평등성과 보편성을 지니는 육상원용을 이루어 간다”며 “유기적인 계층적 집단을 이루는 별의 세계에서는 긴밀한 연기관계를 통해서 전체가 하나이고, 하나가 전체인 상즉상입(相即相入) 상태에서 원용무애한 육상원용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것이 곧 조화로운 중중무진의 화엄법계”라고 설명한다.

이 박사는 이 밖에 불교의 우주관으로 무시(無始) 이래로 우주의 수축과 팽창이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진동 우주론’, 우주 내 만물은 상호 의존적 연기관계를 이루면서 진화하므로 항상 외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영향을 받는 ‘계층적 집

단형성’과 물심연기법(物心緣起法)을 천문학적 세계관과 비교한다.

흔히 한국불교를 단순한 심법(心法)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불교가 인간중심주의에 빠진 타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 박사는 “오늘날 불교는 부처님의 우주관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좁디좁은 인간의 마음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불교와 수행불교라는 인불사상(人佛思想)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첨단우주과학이 지향해 갈 방향이나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심각한 위기에 대응해야 할 방법에 대해 불교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이 박사는 “지금까지 불교는 지나치게 유심사상에 안주해 오면서 자연·사물과의 연기관계를 경시해 왔다”며 “오늘날 병든 지구를 치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생명평등사상을 지닌 불교우주관을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책에서 강조한다.

<붓다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은 이시우 박사가 불교TV에서 24회에 걸쳐 강연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천문학적 세계 △우주의 구성 △이웃법계-암석·복성 행성 등 천문학적 지식도 함께 배울 수 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자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는 말을 남긴 아인슈타인의 ‘이성적인 종교관’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붓다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 | 이시우 지음 | 민중사 펴냄 | 2만5000원

이아나 기자 bohjung@buddhapia.com

법정 스님 일대기 소설로



맑고 향기로운 사람 법정 백금남 지음 은행나무 펴냄 | 1만1500원

법정이 불입암에 올 때가 마흔 셋이었으니 시종드는 시봉을 두어도 팬잖을 나이였다. 그런데도 몇 번이고 뿌리쳤다. 송광사 스님들이 돌으면 법정은 이렇게 대답했다.

“부처님도 름다섯에 시봉을 받았는데 이제 마흔 중반인 제가 사좌를 두는 게 말이나 됩니까?” - 맑고 향기로운 사람 법정 중 법정 스님의 일생을 그린 최초의 소설이 발간됐다. 오랫동안 스님을 존경해온 백금남 작가가 5년 전 집필을 시작해 스님과 교류한 많은 지인들과의 인터뷰, 방대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했다.

소설은 출생에서 출가, 수행, 입적에 이르기까지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일생을 복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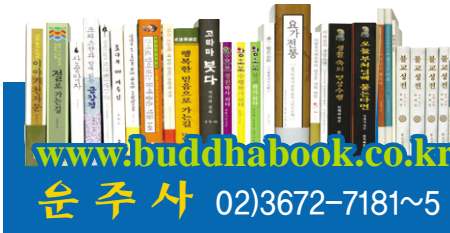
스님이 어떻게 무소유의 길을 걷게 됐는지, 왜 현실 참여와 수도자의 삶 사이에서 갈등했는지, 김강사 창건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 등 저자는 스님의 79년 행로를 뒤쫓으며 피죽을 맞듯 스님 삶의 흔적들을 담아냈다. 출가인이지만 어머니를 향한 애절한 마음 등 스님의 인간적인 면모도 볼 수 있다. 특히 법정 스님의 시 네 편을 수록해 시인으로서의 면모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아나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top 10 Buddhist books including '무소유', '아름다운 마무리', '맑고 향기롭게'.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옛 이야기처럼 읽는 '삼국유사'

고전은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새로운 감각의 문제로 다시 다가온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원형을 담고 있는 <삼국유사>가 이상인 시인의 편역으로 나왔다.

육당 최남선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할 것”이라며 “삼국유사”의 가치를 높게 평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하는 문제가 읽기 편하게 해준다. 간혹 실을 붙여 흥미를 더하기도 했다. 관련 사진도 곁들여 이해를 도왔다. “나라를 세우다” ‘신기

한 일이 일어나다’ ‘불교를 전하다’ ‘탑을 세우다’ ‘고승들의 뜻을 담다’ ‘비법으로 죄를 물리치다’ ‘하늘을 감동시키다’ ‘세상을 피해 숨어 살다’ ‘효를 행하다’ 등 9개 장으로 엮었다.

삼국유사 | 일연 지음 · 이상인 편역 | 평단 펴냄 | 1만4000원



수발 잘하려면 삶을 사랑하라

하나리 사치코 '노인수발에는 교과서가 없다'

한국은 급격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200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7%로 인구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를 넘긴 반면, 출산은 평균 1.15명에 그쳤다. 정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호제도를 시행해, 혼자 생활 하는 것이 힘든 노인들의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논의의 진전에 비해 좋은 수발이 무엇인지, 수발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나리 사치코는 <노인수발에는 교과서가 없다> (장혜에서 30년간 활약하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를 수발했던 경험과 시행착오 속에 느끼고 깨달은 점을 하나 둘씩 기록해 놓았다.

하나리 사치코는 30년 경력 수발 전문가이지만 “우리는 수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공식처럼 되풀이한다.

수발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따른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에게 맞는 수발의 방법을 만들어 내야한다

그녀는 “수발을 하면서 한편으론 취미 생활을 하든, 휴식을 취하든, 자기가 자기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자.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참으면, 그 마음이 수발 받는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당부한다.

삶을 진정으로 사랑한 하나리 사치코. 그래서 수발 받는 사람의 인생까지 껴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수발을 잘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발 방법을 찾고, 수발 하는 이와 받는 사람간의 진정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하나리 사치코의 이야기는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지혜다.

노인수발에는 교과서가 없다 | 하나리 사치코 지음 | 창해 펴냄 | 1만원

박선주 기자

제8회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인 고 대원 경정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의 현대적 재조명과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문 I (포교대상), 부문 II (콘텐츠대상)로 구분하여 제8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부문 I (포교대상)

● 시상 부문 (승가부문, 재가부문)

- 시상 부문 (1) 승가 부문_1~2인(곳), 상패와 상금 총 1,000만원 (2) 재가 부문_1~2인(곳), 상패와 상금 총 1,000만원

●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 승가부문(개인 혹은 단체) (1)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혹은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2) 승적 취득 10년 이상, 단체/기관은 설립 5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 재가부문(개인 혹은 단체) (1)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2) 개인은 포교활동 경력 5년 이상,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부문 I의 대상자가 없을 경우 특별상을 3인(곳) 이내, 상패와 상금 총 1,000만원 이내에서 수여할 수 있음. ※ 일정 자격수준 혹은 공적사항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0년 7월 1일(목) ~ 7월 30일(금)

부문 II (콘텐츠대상)

● 시상 부문 (콘텐츠 부문)

- 시상금_상금 총액 5,000만원 (1) 구분 ① 스토리텔링, 다큐멘터리, 드라마, DOCUDRAMA(다큐+드라마) ② 영화, 애니메이션, INFORTAINMENT(정보+오락) ③ 작곡(국악/양악/퓨전), 연주 ④ 전시(도록, 사진) ⑤ 기타 관련 분야 (2) 본인 및 단체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고, 외부 지원 등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는 불가함.

※ 부문II의 대상자가 없을 경우 특별상을 3인(곳) 이내, 상패와 상금 총 3,000만원 이내에서 수여할 수 있음. ※ 일정 자격수준 혹은 공적사항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0년 10월 1일(금) ~ 10월 29일(금)

【 제출서류 】 · 양식은 본 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처 】 · 본 원 사무국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전화 (02)719-1855, 2606 · 제출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차 소인 유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민 병 천

한 권으로 읽는 전통사찰의 모든 것!

명찰의 리즈



- 전등사 1 저자·신대현, 신국판/172쪽/울컬러/18,000원
- 화엄사 2 저자·신대현, 신국판/228쪽/울컬러/20,000원
- 월정사 3 저자·한상길, 신국판/232쪽/울컬러/20,000원

북한의 사찰

북한불교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 장용철, 서우석 외 공저/대한불교진흥원 펴 4x6배면형판/520쪽/값 50,000원

남한선성과 팔도사찰

호국불교의 역사적 현장 진보성 지음/대한불교진흥원 펴 232쪽/울컬러/값 20,000원

단집

부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상상, 그리고 장엄 심대성·신대현 지음/대한불교진흥원 펴 232쪽/울컬러/값 20,000원

대한불교진흥원 구입 문의 : 02-3672-7181, 02-719-2606